

지됐다 20
가 8일 京
향선양상은
에서 ②, 民
<충선

북서 노획의 참정

이미 청산된 일 "에 책임있다" 반론

挺身隊배상 관련 日 지식층 논쟁

평렬히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으며 몇몇 주간잡지도 이에 보조를 같이 했다.

이번 일련의 對韓비판에서는 과거와 달리 일본 정부인사나 집권 自民黨 소속 정치인들의 對

안 「諺語집장 니시오카 스토루(西岡力) 수필가 가미사가 후고(上坂冬子) 및 소노야코(曾野綾子) 씨들이 가고했다.

이들은 한국을 비난하는 동시에 자신들과 다른 입장에서 그동안 중

비난했다.

이에 대해 다카사키 소지(高崎宗司) 津田塾대학 교수, 사토 다케오(佐藤健生) 拓殖대학 조교수 등

은 월간지 「世界」 4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

들 우파 지식인들의 주장

개인請求權 소멸안돼 日 「과거」 반성을

右派선잡지동원 補償주장여론 鎮火애써

韓비판이 전후 표면화된 지 않고 우파 지식인들의 비판만이 횡행한다는 사실이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.

이들 잡지에는 사토 가쓰미(佐藤勝巳) 「現代」 코리야(藤野)와 다나카 아키라(田中明拓) 대학 교수에 이어 기시다 슈(岸田秀) 和光대학교수와

구와안부 등 한국인 피해 자들에 대한 일본의 戰後보상을 주장, 이들의 소송제기를 지원해준 다카키 겐이치(高木健一) 변호사와 주부 아오야나 기아쓰코(青柳敦子) 「日本」의 戰後청산을 확실히 하겠다는 會代表 키 게이코(木村敬二) 및 이문제의 관해 전

을 반박, 일본은 한국의 중구와안부 뿐만 아니라 피폭자와 B.C급 戰犯 등에 대한 戰後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

사토교수는 일본의 수

상이나 의정인 지난 65년 이래 표면적으로는 식민 지 지배를 반성, 나중에 는 사죄의 말도 하게 됐

이나 「그러나 역사상에서

모든 분야에서 자신감이 고조되고 있는 터인데 한

은 「과거」의 문제를 여전히 종래의 방법대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

본의 우파 지식인들로서는 본토가 일어난 듯 하

다는 분석도 있다.

또한 일부에서는 공산 주의가 살아 있던 때에는 反共의 대열에 서서

때로는 한국을 비호했던 우파가 이제는 공산주의 라는 표적이 사라짐에 따라 국수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反韓자세를 취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

다.

다카사키교수는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우파 매체와 우파 지식인들만이 反韓노조를 펴고 있는데 주목해 야 한다면서 이는 종국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의 일반인들이 사회와 보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

에 우파가 초조해져서 나온 것이라고 나름대로 풀이했다.

日帝때의 韓國人 중군 위안부(挺身隊)에 대한 배상문제를 놓고 日本 지식인들 사이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.

이들 「右」파 지식인들은 한국에 대한 비판을 계속

고 있는데 대해 그동안 배상을 주장해온 지식인

들이 반격을 가하고 나

왔기 때문이다.

중앙일보지 「文藝春秋」와 자매 월간지 「諸君」은 지난 달에 이어 이달